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0월 5일(일) 제1559호

지금 여기, 사도행전!

10월 4~5일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축제 캠페인, 특별순예배
10월 21~23일 온누리사역축제(OMC)

40^{nnuri} Church
온누리 창립 40주년 축제

10월 4일(토)과 5일(일)은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이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10월 23일(목)까지 이어진다.

10월 4~5일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예배를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설교 영상을 각 캠퍼스에 송출한다.

10월 4일(토) 오전 7시부터 5일(일) 오후 6시까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을 한다. 교회주차장은 거동이 불편한 성도,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동반 자녀, 다자녀(3명 이상) 가정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틀은 일요일에만 운영한다.

40주년 축제 캠페인, 특별순예배, 온누리사역축제(OMC)는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주제로 열린다.

40주년 축제 캠페인에서는 '은혜의 40주년', '작은 시작' 등을 주제로 7주 동안 추억의 사진전, 원로 성도 인터뷰, 토크쇼, 공모전, 팟캐스트 라이브, 부흥회, 마라톤 대회 등을 한다. 40주년 기념 홈페이지(40th.onnuri-church.com)도 문을 열었다. 40주년 축제 캠페인 자세한 일정 및 추억의 사진전, 선교사 기도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순예배는 10월 셋째 주까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일대일은 온누리에 주신 선물입니다' 등을 주제로 특별순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의 주제 강의를 듣고,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사역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온누리사역축제(OMC)는 10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21일(화) '교회, 복음으로 서다!', 22일(수) '교회, 문화로 퍼져가다!', 23일(목) '교회, 선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주제 강의, 패널토의, 선택식 강의, 저녁 집회 등을 개최한다.

21일(화)에는 이재훈 위임목사 '교회, 복음의 공동체', 이인용 장로(범무법인 율촌) '세상이 왜 이런가요?',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세계관과 복음'을 주제로 강의한다. 패널토의는 '반기독교 사조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다. 저녁 집회에서는 '온전한 복음'을 주제로 홍정길 원로목사(남서울은혜교회)가 설교한다.

22일(수)에는 이재훈 위임목사 '교회, 문화의 변혁자', 김경훈 집사(글로벌 AI기업 한국 사장) 'AI시대와 교회', Christopher Wright 박사(랭함 파트너십 인터내셔널) '폭력, 고통, 두려움의 세계 문화 속의 선교'를 주제로 강의한다. 저녁 집회에서는 이동원 원로목사(지구촌교회)가 '섬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23일(목)에는 이재훈 위임목사 '교회, 선교의 촉매제', Nelson Jennings 박사(GMLF 이사장) '변화에 잘 대응하는 선교', 유병국 선교사(WEC) '글로벌 선교 협력'을 주제로 강의한다. 저녁 집회에서는 이재훈 선

지금 여기,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리라 행28:31



교사(컴미션)가 '선교사역 완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온누리사역축제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10월 12일(일)까지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저녁집회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저녁집회 참가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각 캠퍼스에서 실시간 중계로도 참여할 수 있다.

OMC 등록 문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OMC 문의: 02-3215-3234(3122, 3534)
주차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10월 19일까지 현금 및 대상자 접수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 및 대상자를 10월 19일(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과 성경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현금에는 각 캠퍼스 송금 계좌로 6만 5천 원(쌀 20Kg 한 포대 가격)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봉헌하면 된다.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일곱 자 이내로 기재해야 한다. 개인 참여도 가능하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면 된다.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 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는 반드시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의 확인을 거친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10월 19일(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서빙고: 25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서빙고)

각 캠퍼스 담당 간사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10월 6~10일 '전력 증설 공사'

서빙고온누리교회 임시 휴관

서빙고온누리교회 전력 수변 전설비 증설 공사를 10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한다. 이 기간 서빙고온누리교회 건물 전체 전기가 차단되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이 기간 서빙고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활동도 중단된다. 주중예배는 국내 다른 캠퍼스에서 드리면 된다.

문의: 02-3215-3120

/ 홍하영 기자

러브소나타 시가 '세 겹줄, 삼포요시의 인생'

10월 29~30일 모리야마 시민홀

러브소나타 시가가 '세 겹줄, 삼포요시(하나님과 이웃과 조화)의 인생'(전 4:12)을 주제로 10월 29일(수)과 30일(목) 모리야마 시민홀에서 막이 오른다. 한국 참가자, 봉사자 및 스태프 7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29일(수) 세미나와 러브소나타 전야제 '가스펠 나이트', 30일

(목) 리더십 포럼(한일친선오찬회),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진다. 29일(수) 가스펠 나이트에서는 시모자와 겐지 목사가, 30일(목) 러브소나타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집회 실황을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문의: 02-570-7415

/ 박지혜 기자

온누리 미래성장분과위원회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 설문조사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불신앙의 이유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되고 구속받는 것이 싫다’입니다. 이 반응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합니다. 하나는 정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확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 법칙에 철저히 순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법칙에 철저히 순응합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에도 순응합니다. 육체의 법칙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 사회의 법칙 등에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영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영적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정반대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법칙을 무너뜨리고 불응하는 사람은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진리의 법칙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율법이라는 체계로 법을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에서도 그것을 알려줍니다. ‘순종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단계마다, 문제마다 순종할 때 해결되

고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술’은 가나안 전체에서 가장 강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도시들이 하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북부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가 연합했습니다(4~5절).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퍼졌음에도 대적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바깥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인간의 완악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더는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시고 거두면서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20절).

어떤 사람은 세상이 혼란하고 죄악이 많은 것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세상은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심판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침묵합니다. 도리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순종을 강조합니다(15절).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불리하고 위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도리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아이 성을 무너뜨린 것보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어떤 기적적인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브온에서의 싸움과 같이 자연을 멈추게 하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성벽을 돌며 소리칠 때 무너지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일반적으로 순종을 통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6절).

아무리 강한 군대가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대적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과 전차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봐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신 4:6).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지혜 그리고 통찰력을 주심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휩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이 나타날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순종했습니다. 남김없이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이 가져다준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장벽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계속되면, 순종이 거듭될수록,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이전보다 더 가깝게,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승리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부수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순종이 살 길이며, 승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순종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호수아 11:1~16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살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저 바다 밑에 있어서 깊은 곳에 가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신 30:11~14). 입술과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성령 안에서 순종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롬 10:8~9).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타락 이전입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는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타락 이후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구원 이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 죄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갑니까?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는 능력과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넷째, 구원 완성입니다. 이제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뜨리려는 거대한 세력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고, 순종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살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전도만 집중해야 할까?

대화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 보자. “정부는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전도에만 집중해야 한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복음의 목표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은 맞다. 정부가 사람의 마음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맞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부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말고 전도에만 집중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다. 그리스도인 대부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는 또 다른 사실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정부도 세우셨다는 것이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그것은 선을 보상하고 악을 처벌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원래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세워졌다. 가정, 교회, 정부는 모두 하나님이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세운 기관들이다. 각각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변영은 세 기관이 하나님 의도대로 기능할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모든 기관은 중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청지기적 시민의 소명은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과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친절해야 하는 것과 정직해야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물론 둘 다 중요하다. 좋은 배우자가 되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정직함은 친절 일부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전도와 청지기적 시민의 소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분법적인 선택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은 일차원적인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일차원적으로 살아갈 여유가 없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무관심은 우상숭배의 해답이 아니다. 시민적 참여에 대한 흔한 비판은 사람들이 정치에 소망을 두지만 사실 소망은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아예 정치를 피해야 하는가? 아니다. 사실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직업, 취미, 스포츠팀, 자선단체, 심지어 교회조차도. 배우자나 자녀조차 우리의 궁극적 위로, 기쁨, 의미를 얻는 대상으로 삼을 때 우상이 된다. 정부, 선거, 정치 지도자에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무관심이 아니다. 시선을 영원에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다. 누구라도 “과잉보호를 하는 부모가 되는 게 두려우면 자녀를 소홀히 대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적 참여를 피해서는 안 된다. 불균형에 대한 바른 해결책은 무시가 아니라 균형이다.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 정치와 정부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본래 목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청지기적 시민의 소명은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여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무관심은 우상숭배의 해답이 아니다. 정치에 지나치게 몰두할 수는 있지만, 해답은 무관심이 아니라 균형이다.”

원문: 콜스 센터 유튜브 채널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직장

일터에서도 ‘성경적 정의관’이 필요한 이유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공장 기계에 사람이 끼어 죽는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현장 중대재해특별법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작업장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법과 규칙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닐까? 처벌을 강조하는 법만으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있다. 균형을 맞춰줄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의 역할은 정의(正義)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는 자로 재어 넘치는 부분은 잘라 버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우는 느낌이 강하다. 사실이 해석이 맞다. 정의(Justice)의 라틴어 어근인 ‘justus’는 ‘똑바른(straight)’을 의미한다. 도덕성의 기준 혹은 기초를 뜻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림줄과 같은 모습과 역할을 할 거라고 상상되는 게 당연하다. 복잡한 기한 현대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규율적인 성격이 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생각나는 것이 ‘법’이다. 따라서 정의는 준법 혹은 적법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도 정의이다. 일본 강점기의 만행에 맞서는 것 또한 정의로운 행동이다. 그러면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상대성을 지닌다고 이해해야 한다. 사람이 만든 법 중에서 어떤 법은 정의롭고, 어떤 법은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옳은 정의가 필요하다. ‘성경적 정의관’이 필요한 이유이다.

성경적 정의는 사람 세계보다 위에 있는 하

나님이 만드신 법, 높은 도덕률이다. 기독교 변증가 코클(Greg Koukl)이 언급하듯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위에 있는 법’이다. 높은 도덕률인 정의는 불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도덕률을 어떻게 발견하고, 아래의 인간 세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의 시작점이자 전부는 바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시며,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다. 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의 형태를 빌어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계명이라는 명백한 율법 형태로도 알려주신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 방법은 규칙 목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여받은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어렵다.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남을 사랑하라고 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마 12:30)’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단, 이것을 ‘수평적 인 관계의 정의’(正義)라고 정하자.

수평적인 관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직적 관계의 정의(正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자들에게 위임된 것으로, 권위자들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모두를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온 만물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등하게

대한다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하는 방식은 아니다. 사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불의는 처벌해야 한다. 악이 처벌받지 않으면 불의가 퍼지기 때문이다.

정의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방법이 복잡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죄에 둘러싸인 우리이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라고, 자신이 잘못 대우받으면 정의를 외치면서 타인을 대할 때에는 정의를 성가신 것으로 여긴다. 타락한 인간, 불의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악자를 억압하는 강자를 향해 화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진노를 피할 길도 열어 주셨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신다.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용서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과 용서가 정의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용서가 정의의 덕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다. 규율보다 사랑과 용서가 먼저 올 때 정의는 딱딱한 법의 위상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사랑과 용서는 조직이나 공동체,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왜곡시키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다. 정의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 가치로서 자리매김한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일터에서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

는 몇 가지 길이 있다. 먼저, 정직과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다. 불의한 방법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료와 상사를 존중해야 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직급이 낮다고 무시하지 않고, 상사를 불평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일에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조직에는 늘 약자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신입사원, 혹은 나이가 많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직원 등이 그 대상이다. 작은 도움, 따뜻한 말 한마디, 불합리한 상황을 대신 개선해 주는 용기 있는 행동이 직장에서 실천할 정의다. 공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관리자라면 더욱 필요하다. 성경적 정의는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데 있다.

결국, 일터에서 성경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다. 정직과 존중, 공정,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직장이 단순한 일터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무대가 될 것이다.



홍준표 성도
(서빙교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2025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추석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누는 뒤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경배와 찬양 40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빌립보서> 4:4~7.....	가족 중에서
설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찬 191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

들어가는 말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설렐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기쁨을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거짓과 속임수’를

인정하고 정의라고 곡해하는 상황, 나 개인의 인생을 부담 없이 즐기기 위해서라면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시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합리화로 넘어가려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으로 치유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전합니다. 당시 비인격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지하 감옥과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과 구원자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용서함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증거하며, 결국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약 2:13).

참 기쁨은 ‘염려 없는 넓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선포합니다(빌2:5).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염려함이 없는 관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빌 4:5). 염려함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눅 21:36).

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는 모든 일에 대하여 드러져야 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때 온전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헛된 생각과 근심이나 걱정, 불안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해 막힘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만심이나 낙관적 태도를 버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충만하게 됩니다.

나가는 말

2025년 중추절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받아 누리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통해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 · 모 · 예 · 배

추모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목도	<시편> 16:1~11.....	다같이
찬송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찬 481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5:2~4.....	가족 중에서
설교	남은 인생 동안 이겨낸 자들의 노래를 부르세요!.....	설교자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찬 436장).....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다같이 사랑했던 가족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억들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남은 인생 동안 이겨낸 자들의 노래를 부르세요!

들어가는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2025년, 많은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찾아가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교실은 ‘자격증 교실’, ‘어학 교실’, ‘창업 교실’, ‘IT/디지털 교실’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예수교실’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

고, ‘만약 예수교실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묵상하다 보니 예수교실에서 배우게 될 노래는 ‘구원 탄생’, ‘생명 살림’, ‘화평’, ‘진리’, ‘승리’, ‘십자가’, ‘부활’의 노래일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겨낸 자의 노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거짓된 우상을 이겨낸 자들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변에 존 재하며 늘 미혹하는 거짓된 우상들을 거부

하고 무시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노래했던 사람인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시 69:30-31)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제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신령한 노래로 영광 돌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거짓을 노래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노래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노래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겨낸 자들로서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홍해를 건너며 “여호와와 내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출 15:1-2)라고 선포했습니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겨낸 자들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과 삶으로 체현한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으며(빌 3:21),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식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겨낸 자로서 노래하며,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장보원 성도
(일산파주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교육팀장,
〈소리로 흐르는 육아〉
저자)

요즘 제주도에서 는 해녀체험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한다. 필자는 물을 너무 무서워 해서 평생 도전할 마음조차 들지 않지만, 상상해 보면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해녀체험을 위해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이 무엇일까? 숨 참기, 잠수, 수영 등 여러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술을 배우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자신의 숨 알기’라고 한다. 자신의 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다. 숨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숨의 정도’를 아는 것이다. 제주 해녀들은 물질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숨 길이’를 확인한다. 베테랑 해녀도 그날의 컨디션, 날씨, 조류에 따라 자신의 숨 길이를 새롭게 가늠한다. 무작정 바다로 뛰어 들지 않는다.

육아도 마찬가지다. 부모에게도 숨 길이가 있다. 나의 숨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등을 아는 것이 양육의 시작이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부모가 자신의 숨 길이를 모른 채 육아라는 깊은 바다에 뛰어든다. 때로는 한계를 넘어 너무 깊이 잠수하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때로는 아예 물 밖으로 도망치고 싶어지기도 한다. 이때 기억할 해녀들의 말이 있다.

“물속에서 욕심부리면 죽는다.”
해녀들은 ‘욕심을 경계하고 필요한 만큼, 오로지 숨이 닿는 데까지만’이라는 철칙을 지킨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욕심,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욕심이 우리의 숨 길이를 위협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부모 역시 연약한 존재다. 나는 언제 가장 화가 많이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 치밀어

“숨 좀 쉴게요, 하나님”

오르는지, 울고 싶어질 때는 언제인지, 기쁨이 가장 오래가는 순간이 언제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감정의 숨 길이를 뒷받침할 ‘체력적 숨 길이’도 알아야 한다. 하루 중에서 나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가 언제인지,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몸이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한계점, 배우자와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범위,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한계와 같은 ‘관계적 숨 길이’도 빼놓을 수 없다.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작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다.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고후 12:9).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를 의지하는 부모를 통해 일하신다.

해녀들은 ‘숨 고르기’의 중요성을 안다. 잠수 전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다. 이것을 ‘숨비소리’라고 하는데, 휘파람 소리처럼 빠릿하고 높은 소리가 난다. 일반인에게는 다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해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가족에게는 어머니의 무사함을 확인하는 징표이자 해녀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내뿜는 생명의 숨소리다. 이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다. 바로 ‘자기 점검’의 시간이다. 부모도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해녀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의 마음을 더듬으며 선택과 인내를 반복하는 물질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당신에게는 숨비소리가 있는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숨을 내뿜듯 이렇게 고백해보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숨이 찼지만, 놓지 않았습니니다.”
해녀들은 서로의 숨 길이를 알고 있다. 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누구는 숨을 어느 정도 쉬어야 하는지. 그래서 물질하는 동안 서로를 살핀다. 물질하기 전 누가 어디에 들어가고, 누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누가 더 깊이 들어갈지 등 세세한 규칙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경쟁이 아닌 생명을 보장하고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해녀들은 절대 혼자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

당신의 양육 현장에도 공동체가 존재하는가? 그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해녀들의 장비 중에 ‘테왁’이라는 게 있는데, 물속에서 지칠 때 가슴에 받쳐 몸을 뜨게 하는 공 모양의 기구로 잠시 의지할 수 있는 둥근 부표를 말한다. 나에게 테왁은 여러 학자의 교육 이론이거나 경험자들의 조언이기도 하다. 배우자의 지지 또는 친구와의 편안한 시간, 혼자만의 시간 등도 그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도 빼놓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고수의 해녀일지라도 테왁 없이 물질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적 테왁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의 깊은 감정을 공유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루하루 숨이 차고 두려울 때 숨비소리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고, 테왁 같은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바다는 매일 다르다. 양육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숨 길이가 오늘도 같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매일 새롭게 자신을 점검하고, 때로는 쉬어가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자녀 양육 비결이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시 62:1).

믿음의 테왁 위에서 숨 고르듯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자. 진정한 나를 알게 되고, 회복이 시작될 때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93. 짧은 감



성경 QUIZ



1. 추석은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모든 수확을 마치고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지켰던 이스라엘의 명절이 나와요. 그 명절은 무엇일까요?
① 오순절 ② 부활절 ③ 유월절 ④ 초막절

2.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우리는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해야 해요.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십계명 중 몇번째 계명일까요?
① 제5계명 ② 제7계명 ③ 제3계명 ④ 제10계명

3. 추석은 가족과 함께 모여 감사와 사랑을 나누고, 가족의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믿음의 시작을 보여 준 인물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노아 ② 다윗 ③ 아브라함 ④ 요셉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 간증

올해 아웃리치는 제가 위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엄마가 신청해서 갔습니다. 교회 친구나 선배들과 친하지 않아서 어색할 것 같았고, 출발하기 전에 날씨가 안 좋아서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엄마가 “여러 경험을 해 본 사람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다”면서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엄마도 작은 교회로 봉사 간 적이 있었는데 좋은 추억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말을 들으며 용기를 짜내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아웃리치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 어른들 앞에서 찬양한

정말 값진 경험!

일이 기억에 납니다. 낯선 어른들 앞에서 울동까지 하면서 찬양하는 게 어색했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어르신들께 하나님을 열심히 전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릴 간식을 포장한 것도 떠오릅니다. 포장지를 펼치는 것, 끈을 끼우는 것, 리본 묶는 것 등을 했는데, 봉사의 기쁨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선물을 받으시고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른들께 고맙다는 말을 들을 일이 많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물놀이였는데, 아웃리치에서 물놀이를 해서 기뻐합니다. 물이 차갑기는 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형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신청해서 억지로 아웃리치를 갔지만, 그곳에서 정말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이다은 학생
(대전 차세대)

온누리교회와 기아대책 MOU 체결

원가정분리아동 및 보호아동·청년 지원 약속

온누리교회와 국제구호 NGO '희망진구 기아대책' (이하 기아대책)이 손을 잡았다. 지난 10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Acts29홀에서 '온누리교회 제이홈-울타리와 기아대책 온마을프로젝트 MOU' 체결식이 있었다. 이재훈 위임목사, 최창남 회장(기아대책), 제이홈-온누리울타리 리더십 및 봉사자, 기아대책 임원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방찬종 장로 대표기도, 협력 취지 및 비전 공유, 이재훈 위임목사 및 최창남 회장 인사, 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원가정분리아동의 시설 중심 보호를 가정 중심 보호로 전환을 촉진하고,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회와 NGO의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기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 주고,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며 "온누리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가정의 품을 내어주며, 온전히 회복시키는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창남 회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회의 울타리, 가정의 품을 내어주는 온누리교회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관계기술훈련 참가자 모집

10월 18일부터 매주 토 서빙고, 양재온누리교회

온유한 보호자의 삶으로 초대하는 '2025 하반기 관계기술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8일(토)부터 12월 6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관계기술훈련에서는 슬픔, 불안, 두려움, 분노, 수치, 절망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신을 진정하며, 기쁨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고통을 이겨내고, 기쁨의 근육을 키우는 꾸준한 훈련과 실습, 워십댄스 등을

통해 예수님 마음을 닮은 온유한 보호자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관계기술훈련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10월 11일(토)까지 아이스쿨이나 하단 QR코드,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며, 평강한 삶을 살기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32



김어령의 'Picture story & Music'

10월 11일~11월 8일 작품 전시회, 26일 음악회

발달장애 화가 및 첼리스트로 활동 중인 김어령 형제(누리스랑부, 42세)가 'Picture story & Music'을 주제로 작품 전시회와 음악회를 개최한다. 작품 전시회는 10월 11일(토)부터 11월 8일(토)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사랑을 갤러리에서 이

어진다. '첼로레슨', '환기미술관', '부활', '지하철' 등 10여 개 작품을 전시한다. 음악회는 10월 26일(일)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첼리스트 김어령의 스토리텔링 콘서트 어령씨의 지하철 여행'을 주제로 열린다.

/ 홍하영 기자

일.하.세 아카데미 23기 모집

10월 18일~11월 22일 매주 토

'일.하.세 아카데미' 2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8일(토)부터 11월 22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한터(가양역 6번 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7층)에서 진행된다.

일.하.세 아카데미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성공관, 성경적 문화관 등을 재정립하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일의 의미를 깨닫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4949-0254

/ 박지혜 기자

창조과학탐사스쿨 참가자 모집

10월 25~26일 토, 일

창조과학탐사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5일(토)과 26일(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부안 채석강, 전주 근현대사 선교사박물관, 김제 '기'자 교회 등지를 다니며 창세기 무대의 흔적을 찾는다.

참가신청은 10월 23일(목)까지 아이스쿨(ischool.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6만 원. OBC 1학점을 인정해 준다.

문의: 010-3334-2388

/ 박지혜 기자

청소년 일대일 양육자반 참가자 모집

10월 19일, 26일 오후 7시 50분 온라인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이하 청소년 일대일) 양육자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9일(일)과 26일(일) 오후 7시 5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16일(목)까지 QR 코드로 하면 된다. 성인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료

한 성도가 대상이다. 10월 19일(일) 이기훈 목사 '청소년 일대일의 비전과 필요성', 26일(일) 한지영 장사 '청소년의 특성과 사례'를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4708-8158



시가 러브소나타 기도 제 목

- 10월 5일(일) 시가러브소나타를 통해 시가현과 일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 10월 6일(월) 시가현의 영혼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 10월 7일(화) 시가현을 비롯해 일본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도록
- 10월 8일(수) 이재훈 위임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가 넘치게 임하도록
- 10월 9일(목) 한일연합기도모임을 통해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길
- 10월 10일(금) 러브소나타의 출현진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 10월 11일(토) 봉사자와 스테프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이 넘쳐나도록

60기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가정을 만드는 '60기 젊은부부학교'가 개강한다.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결혼 12년 차이 하 가정이 대상이다(40가정 선착순). 결혼 13년 차 이상은 별도로 문의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28만 원(10월 10일까지 입금하면 25만 원)

이다. 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젊은부부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가정', '진짜 사랑은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는 것', '축복의 가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남편(010-8691-6041)

아내(010-8182-6040)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모집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조부모, 차세대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4회)을 하고,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로 직접 12회 양육한다. 10월 18일(토) 오전 9시 20분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Zoom)으로

한다. 11월 22일(토)에는 양육자와 동반자를 위한 블레싱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10월 12일(일)까지 아이스쿨이나 QR 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010-4277-4429

/ 박지혜 기자

풍당미디어아카데미 '원데이 클래스'

10월 20일 순복음대구교회, 17일까지 참가신청

교회 미디어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2025 풍당미디어아카데미-원데이 클래스'를 10월 20일(월) 순복음대구교회에서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10월 17일(금)까지 풍당미디어아카데미 홈페이지(fondantmc.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일반 참가자 5만 원, 풍당 네트워크 교회 및 단체는 3인 이

상 등록하면 3만 원(1인당)이다.

이번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기록 OTT '풍당' 활용법부터 AI 활용 영상 제작, 라이브 영상 자막 및 조명 이론 등 교회 미디어 실무와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을 한다. 교회 자막 및 조명 강의는 이론과 실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3275-9372

NGO 메디엑세스 서포터즈 모집

글로벌 메디컬 NGO 메디엑세스가 교회와 온라인 채널로 기관을 홍보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와 간단한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NGO 메디엑세스 서포터즈로 선발된 성도들은 10월 18일(토)부터 23일(목)까지(20일 월요일 제

외) 서빙고온누리교회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진행되는 '2025 OMC 이벤트 부스' 운영에 참여해서 이벤트 진행과 기관 소개 등을 맡는다.

NGO 메디엑세스 서포터즈 활동 기간에는 각종 행사와 국내외 아웃리치 등 원하는 의료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4164-9775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온누리교회 ●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해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변대성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안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한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관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 AMA 협력교회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am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마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글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ait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1 EHWA DAIA- MOND 2F • 교토 권영철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ki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illegible]

소천

- 9/27(토) 한강 이혜경 집사 부친상 고 이수옥
- 9/28(일) 동대문중앙 김성진 집사 부친상, 유주연 권사 시부상
고 김은규
- 9/28(일) 서초A 이석일 장모 모친상 고 김종인
- 9/28(일) 서초C 김인종 집사 모친상 고 홍계순
- 9/28(일) 서초C 김찬용 성모 모친상 고 황덕례
- 9/29(월) 송파A 김윤환 집사 부친상, 이승희 전도사 시부상
고 김영식
- 9/29(월) 신원산 주종환 성모 모친상, 홍수연 집사 시모상
고 조정신
- 9/30(화) 동작 최순옥 성모 남편상 고 이익수
- 9/30(화) 송파A 최진희 성모 시모상 고 김경자
- 10/1(수) 분당A 고 최수진 성모

복지재단

은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는행/573-910015-15105/(북)은누리복지재단
 문약: 황찬범 팀장(02-3215-3413)

은누리요양센터 이미음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대,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음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음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은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매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년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청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재정

은누리교회협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헌
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헌금온라인 안내

심일주헌금: 하니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니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니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니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니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니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은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33-286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요일 10시~오후 5시, 토요일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 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은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지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말: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 중등)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1, 3주 주일 연습 오후 1시 30분~4시)
 문의: 김유미(010-3923-0416)

재단법인 예절선교회 재정간사 모집
 업무: 재정 업무, 행정업무 1명
 자격: 초대출 이상(컴퓨터 활용 능력 (MS Office, 엑셀, 파워포인트 등) 우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비상연락망 포함), 성적증명서, 출석교회 목사 추천서(선교단체 소속일 경우 단체장 추천서)
 문의: 02-792-1628, 010-7271-1628
 *추천서는 반드시 추천서 작성자가 이메일(1995ezerko-rea@gmail.com)로 직접 송부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웹&웹 디자이너 1명, 분야별 개발자 2명(정규직 1, 계약직 1)
 형태: 계약직 1명(약 15개월), 정규직 2명, 주5일 근무
 지역: 서울 강동구 성내동, 용산구 서빙고동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업무: 행정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건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rn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2025 OMC(온누리사역축제) 프로그램

10월 21일(화)	10월 22일(수)	10월 23일(목)
복음 교회, 복음으로 서다!	문화 교회, 문화로 펼쳐가다!	선교 교회, 선교로 꽃피우다!
접수 및 등록		
교회, 복음의 공동체 이재훈 목사	교회, 문화의 변혁자 이재훈 목사	교회, 선교의 촉매제 이재훈 목사
세상이 왜 이런가요? 이인용 장로	AI시대와 교회 김경훈 집사	변화에 잘 대응하는 선교 Adaptable Missions Nelson Jennings 박사
패널토의 반기독교 사조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대응	패널토의 AI시대 미디어홍수 속에서 기독교문화 확산방안	패널토의 미래선교를 준비하는 교회
점심식사 및 부스쇼핑		
세계관과 복음 류현모 교수	폭력, 고통, 두려움의 세계 문화속의 선교 Christopher Wright 박사	글로벌 선교 협력 유병국 선교사
선택식 강의 온누리교회 영역별 사역 트랙 1: [14:50~15:40] / 트랙 2: [16:00~16:50]		
휴식		
온전한 복음 홍정길 목사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이동원 목사	선교사역 완성 Finishing the task 이재환 선교사

2025 OMC(온누리사역축제) 선택식 강의

날 짜	순 서	No.	본 부	강 사	제 목
21일 복음	1강	1	예배사역본부	장동원 목사	40년의 고백, 예배로 말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
		2	양육사역본부	신기섭 목사	ACTS29 비전과 함께 하는 온누리 양육
		3	대학청년본부	이서진 목사	청년 양육, 우리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4	양육사역본부	노치형 목사	온누리교회의 DNA 큐티
		5	공동체사역본부	박종길 목사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
		6	회복사역본부	이기원 목사	영적 성숙을 위한 회복사역의 이해 - 온누리 회복사역 이야기
		7	사회선교본부	이기훈 목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회선교
		8	ACT29비전빌리지	황종연 목사	‘사도행전적 바로 그 사람’을 세우는 선교사 훈련
		9	경배와찬양		
	2강	1	예배사역본부	황병원 장로	예배가 흐르게 하라: 안내, 지원, 진행 숨은 팀워크 노하우
		2	양육사역본부	이기훈 목사	온누리교회의 DNA로서 40년 일대일제자양육의 열매와 향후과제
		3	대학청년본부	최대홍 목사	청년 예배, 청년이 예배하면 교회는 늙지 않는다
		4	공동체사역본부	양성민 목사	온누리교회의 순장을 세우는 순장학교
		5	여성사역본부	조호영 목사	21세기 여성들을 위한 맞춤사역, 여성사역
		6	사회선교본부	강은수 목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선교 이야기
		7	차세대본부	김선재 목사	연령별 신앙교육 - 사춘기 이후 청소년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노력
		8	가정사역본부	김재석 목사	가정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22일 문화	1강	1	목회행정/미디어본부	노치형 목사	목회적 리더십을 세우는 목회행정 이야기
		2	여성사역본부	김정희 목사	21세기 여성사역의 나아갈 방향과 다양한 사역들
		3	공동체사역본부	박종길 목사	온누리교회의 역사와 공동체
		4	가정사역본부	신현일 팀장	부부의 대화와 성(性)
		5	대학청년본부	문영기 장로	청년과 성인 사이, 둘 사이를 이어 하나를 만들다
		6	전도사역본부	여성민 목사	미디어세계의 ‘맞춤전도’ 세미나
		7	아버지학교	최성완 장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8	두란노서원	형준엽 본부장	목회 콘텐츠 허브, 두란노 200% 활용하기
	2강	1	목회행정/미디어본부	최성민 목사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가는 도구로서의 미디어본부
		2	여성사역본부	김미정 목사	“한 여성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건강한 영향력
		3	가정사역본부	박성덕 소장	가족 치유와 연합
		4	전도사역본부	박성은 목사, 김윤식 목사	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적 예배 ‘열린새신자예배’
		5	차세대본부	노희태 목사	차세대와 가정신앙문화 세우기
		6	회복사역본부	이기원 목사	통합적 돌봄을 통한 제자훈련 모델 - 관계기술훈련, 엘라이프
		7	양육사역본부	신무환 장로	복음의 세계관, 현대 문화에 응답하다
		8	어머니학교	한은경 이사장	열방을 품는 어머니
23일 선교	1강	1	이천선교본부	김홍주 목사	온누리교회 선교비전 및 구조 이해하기
		2	이천선교본부	온누리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들려주는 현장이야기
		3	차세대본부	길혜영 목사	연령별 신앙교육 - 사춘기 이전 아동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노력
		4	전도사역본부	장경문 장로	한 영혼을 귀하게 ‘최고의행복’ (5분전도) 세미나
		5	대학청년본부	최성민 목사	청년 선교&사역, 도전을 통해 성장하다
		6	국제사역본부	해럴드김 목사	세계를 품는 비전과 교훈(Lessons to Bless All Nations)
		7	더멋진세상	박대호 장로	더멋진세상 만들기(부제: NGO를 통한 하나님나라 공동체세우기)
		8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장로	세상의 참 이웃이 되다: 복지를 통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
		9	러브소나타	이도현 선교사, 김창호 목사	일본인의 세계관과 러브소나타의 만남
	2강	1	이천선교본부	폴 벤더 사무엘 박사	선교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기
		2	사회선교본부	정현석 목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회선교 이야기
		3	장애인사역본부	김요성 목사	사랑의 발자취, 장애인 사역 이야기
		4	회복사역본부	남윤영 박사	정서적, 정신적 연약한자들을 돌보는 사역 - 한마음정신회복예배 / 정품사역
		5	두란노국제선교회	한충희 목사	온누리선교의 심장, 두란노국제선교회 TIM
		6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온누리교회의 이주민 선교
		7	CGN	전진국 대표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
		8	에젤선교회	황주현 목사	온 성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교